

서울지역 주거 유형별 거주자의 성격특성

Adult's Personality according to Residential Types in Seoul

호서대학교 신학인간개발학부 아동학전공
조교수 성은현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건축설계학전공
부교수 신문기

Dept. of Child Studies Hoseo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Eun-Hyun Sung
Dept. of Architecture Hoseo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Moon-Ki Sh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esidents' personality and the residential types, and between the sense of crowding and the residential typ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rveys two hundred ninety three residents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residing in Seoul. We fi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ersonality traits and also differences in the sense of crowding according to residential types such as high-rise/low-rise apartments, high-class private residence, multi-family houses. And these differences are due to the differences of inner and outer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The lower a resident's inner environment satisfaction is, the higher is his/her sense of crowding. And low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high sense of crowding appears to account for one's depression and anxiety. Conversely, the higher environment satisfaction is and the lower the sense of crowding is, the higher is his/her responsibility. Finally, this study tries to examine how each personality trait changes according to the habitancy duration. We find that residents having a 3-5 year habitancy record are more anxious and depressed than those who have been living more than 7 years in the same residence.

주제어(Key Words): 성격특성(personality), 주거유형(residential types), 과밀감(sense of crowding)

I. 서론

현대 도시인의 성격은 예전 사람들 보다 점점 불안하고 우울하며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원인 중 일부를 환경심리학자들은 환경적 요인 즉,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구의 밀집으로 인한 차량의 혼잡, 비인간적인 고층 건물군, 일률적인 건물의 배치, 소음, 대기오염, 여가공간의 부재 등에서 찾아낸다. 즉 이와 같은 도시의 고밀도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은 과밀감을 유발하고, 이러한 과밀감은 인간에게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이고, 공격적으로 되거나 또는 위축되게 하고 불안 및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고밀도화된 곳이 곧 바로 과밀감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밀감은 같은 밀도에서도 상황에 따라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밀도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주거지가 고밀도화 된 지역이고 주거지 내부 크기가 작은 곳에 살더라도 채광, 시야개폐 등의 내부 건축적요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에 따라 과밀감을 덜 느낄 수도 또는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 건축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주거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거유형은 집합주거와 단독주거로 나누어진다. 서울의 경우 집합주거의 한 형태인 아파트는 점점 고층화되고 있으며 단독주거의 대표적인 형태인 단독주택은 점차적으로 다세대주택¹⁾과 소수의 고급 단독주택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거 유형 중 특히 아파트 단지의 인구 밀도는 다른 어느 주거 유형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광과 시야도 등을 고려한 내부 설계와 비교적 잘 계획된 외부 조경 그리고 편리한 근린 생활 시설 때문에 거주자들의 주거 만족도는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거주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성수와 윤혜정, 1999).

다세대 주택은 대부분 인동 간격이 짧고 채광이 잘 안되고 시야가 막혀있는 등의 열악한 건축적 문제를 갖고 있고 또한 주거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성수와 윤혜정, 1999).

고급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보다 시야도, 채광 등의 내부 건축적 요인에 세심한 배려를 했으며 외부 조망도 좋고 외부 밀도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대중교통수단, 쓰레기 분리, 근린 생활 시설 등은 잘 안되어 있는 편이었다.

이러한 주거유형별 거주환경²⁾과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과밀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유형의 거주자들이 만족도가 낮은 유형의 거주자들보다 과밀감을 덜 느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주거유형에 따라 과밀감을 덜 느끼는 유형의 거주자들이 과밀감을 더 느끼는 유형의 거주자들보다 과밀감과 관련된 부정적 성향(예: 불안경향, 우울 경향)이 더 낮으리라 예상된다.

그 동안의 국내외 선행 연구들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외국 연구들은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한 주거 유형(예: 다세대 주택)과 거주환경을 다루지 못했다. 그리고 국내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주거유형과 성격과의 관계를 다룬 가정학과나 이와 유사한 전공에서의 연구가 있는데(이양자, 1983; 김영희, 1985), 이러한 연구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인의 성격과 주거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주거학이나 건축학 전공에서 시도한 연구들은 주거 유형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거주 환경 만족도를 조사하였을 뿐 사람의 성격과 거주 환경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성인의 성격이라는 심리학적 측면과 거주환경이라는 건축학적 측면을 접목시켜 주거 유형에 따른 거주환경, 과밀감과 성격 사

1) 다세대 주택이란 단독주택의 입지조건에 대지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가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을 2-3층으로 올려 건축한 주거 형태다. 본 연구자들의 현지 방문 조사 결과 서울 지역 녹번동, 응암동과 홍제동 일대, 수유리 일대, 그리고 합정동 일대 등 서울 시내에서 이전에 일반 단독 주택단지였던 곳의 대다수가 다세대 주택 단지로 변모한 것을 발견하였다.

2) 내부 건축적 요인과 주거 기반시설 등을 통칭하여 이차 거주환경 요인이라 한다.

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최근에 미국 등에서 심리학자와 건축학·주거학자들이 새롭게 관심을 갖고있는 환경 심리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과밀감이 성격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과밀감을 유발하는 거주환경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선행 연구를 통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서울 시내의 고급주택지역, 고층 아파트 단지, 저층 아파트 단지 그리고 다세대 주택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성격 특성과 과밀감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각 주거 유형에 사는 거주자들의 성격 특성과 과밀감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각 유형의 내부 건축 환경과 주거기반시설을 비교해 보고 그 관련성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성격의 변화는 짧은 기간에는 일어나기 어려우므로 거주기간을 주거 유형과 함께 독립 변인으로 사용하여 거주 기간에 따른 성격 특성의 차이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격 특성과 과밀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점점 고밀도화 되고 있는 대도시에서 과밀감을 덜 느끼게 하는 주거 유형과 거주 환경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보다 안락한 주거 환경 조성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과밀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각 성격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둘째, 주거 유형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거주자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셋째, 주거 유형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과밀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넷째, 주거 유형별로 거주환경 요인(건축적 요인과 주거 기반시설)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II. 이론적 고찰

1. 성격에 관한 연구

성격이란 한 개인을 타인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이며 지속적으로 타인과 차이가 나게 하는 행동 방식으로 어느 정도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공격적이던 사람이 비공격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뀔 수는 없지만 환경에 의해서 이전 보다 덜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다.

성격을 측정하려는 연구는 다양한 접근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특성론(trait theory)자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의 수많은 특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성격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 Cattell(1946, 1965, Ryff & Keyes, 1995에서 재인용)은 직접 관찰되는 일련의 행동들로부터 알 수 있는 '표면 특성'과 표면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저변의 구조이며 인간 성격의 핵심을 구성하는 '근원 특성'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근원 특성을 알아내기 위하여 요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내향적-외향적, 복종적-지배적, 보수적-개척적 등 16개의 근원 특성을 추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16PF 라는 성격 요인 검사를 제작하였다. Fiske(1949, Ryff & Keyes, 1995에서 재인용)는 Cattell의 16개 요인을 이루는 특성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5개의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사회적 적응성', '동조성', '성취 의지', '정서성' '지적 추구'의 5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재은과 김남순(1991)이 이러한 외국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 성인 남녀의 성격을 10개의 기술 척도와 4개의 임상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10개의 기술 척도는 친애성(Affiliation), 공격성(Aggression), 내면성(Interiority), 책임성(Responsibility), 안정성(Stability), 적응성(Adjustment), 생산성(Generativity), 성취성(Achievement), 활동성(Activity)이었다. 그리고 임상척도는 불안경향(Anxiety), 우울경향(Depression), 편집경향(Paranoia), 건강염려경향(Hypochondriasis)이었다. 본 연구는 김재은과 김남순(1991)의 한국 성인을 위한 검사 도구에서 측정하는 변인 중 선행 연구를 참고로 과밀감과 관계 있을 것 같은 일부 긍정적·부정적 성격 특성들을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선택된 부정적 성격 특성들은 불안경향, 우울경향이고 긍정적 성격 특성들은 책임감과

안정성이다. 또한 거주 환경과 연관된 성격특성이라 생각되나 부정적·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분류하기는 어려운 내면성(자신의 일을 신중히 생각하고 자기 내에 몰입하는 경향성) 요인도 선택하였다.

2. 밀도(density)와 과밀(crowding)에 관한 연구

Stokols(1972)은 물리적인 조건인 밀도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과밀을 구분하였다. 물리적인 밀도는 '주어진 공간에 있는 사람의 수'이다. 과밀이란 물리적인 밀도와 함께 증가하지만 같은 밀도에서도 상황에 따라 과밀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밀도감이다. 그러므로 밀도란 과밀을 느끼는데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Cohen, 1980).

이러한 과밀감은 또한 개인의 거주기간과도 관련이 된다. Bonnes, Bonaiuto & Ercolani(1991)는 공간 사회적 밀도와 관계된 거주자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거주기간이 유의미한 변수임을 발견하였다($p < .05$). 다시 말하면 거주 기간이 증가할 수록 공간 사회적 밀도와 관련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과밀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부적 결과는 다양하다. 심장 박동 수와 혈압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되고(McCain, Cox, Paulus, 1976; Holahan, 1982),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릴 확률과 사망률이 높아진다(Galle, Gove, McPherson, 1972; Mitchell, 1971; Holahan, 1982). 그리고 정신병적 증후를 갖게 하고 긴장감을 느끼게 하며, 상황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되게 하거나(Holahan, 1982) 우울하게 하며, 위축되게 하고, 과제 수행력이 떨어지게 된다(Holahan, 1982; Fisher, Bell, Baum, 1984). 또한 걱정이 많고, 불안하며,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므로, 과밀감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이 집밖으로 나가서 놀게되어 나중에 부모자녀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Mitchell, 1971).

Schmitt와 Keating(1979)은 이러한 과밀로 인한 많은 부정적인 문제들을 설계 또는 실내 디자인을 통하여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

하면 그들은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의 내부 밀도를 해소하기 위한 설계나 실내 장치를 한다면 외부 밀도가 고밀도인 경우라도 내부에서 과밀감을 느끼지 않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설계 시에 내적 과밀감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만할 거주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지 다음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3. 과밀감을 유발하는 거주환경 요인들

비교적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과밀감을 유발하는 건축적 요인은 공간의 크기, 채광과 통풍, 시야의 개폐 정도(visual openness), 사생활 보호 정도 등이다. 이러한 요인 중 공간의 크기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채광과 통풍, 시야의 개폐 정도, 사생활 보호 정도 등)은 일반적으로 창문의 유무, 위치 및 크기와 관련되어 있다.

Gifford(1997)는 여러 연구를 분석하여 창문이 없는 교실에서 단기간 지낸 학생들은 그 교실을 좋아했지만 창문 없는 교실에서 일년을 지낸 학생들은 그 교실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공간에 단기간 머무를 때는 창문의 유무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장기간 머무를 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Hollister(1978, Fisher, Bell, Baum, 1984에서 재인용)는 스웨덴의 지하공장을 다룬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공장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창문은 없으나 조명을 밝게 하고 에어컨과 환기 장치를 가동하여 채광, 통풍, 환기를 조절하는데에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지하공장 근로자들이 다른 장소의 근로자들보다 더 피로해하고 신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일하는 장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인위적으로 조명, 통풍, 환기 장치를 하여도 막힌 시야로 인한 폐쇄감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과밀감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개인의 작업 또는 생활공간에서 창을 통한 자연 채광, 통풍, 환기, 시야개폐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사생활보호의 개념은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배타적인 성격보다는 선택적 성격으로서 그 개념의 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Altman(1975)은 사생활보호란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Ittelson(1975, Fisher, Bell, Baum, 1984에서 재인용)은 타인에게 줄 자기 정보의 유형이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사생활 보호라고 보았다. Archea(1977)는 Altman과 비슷하게 타인에게 원치 않게 노출되는 부분을 제한하고 원하는 사회적 기회들(social opportunities)은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생활보호라고 하였다.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고려해야할 건축적 요소는 벽, 문, 코너의 처리로, 이러한 요소들의 크기, 색, 투영성,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을 디자인하여야 한다(Holahan, 1982). 만약 이러한 건축 평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생활보호가 잘되지 않는다면 이는 과밀감을 증대시키고 개인에게 스트레스, 우울, 긴장, 불안, 편집경향 등의 결과를 유발시킬 것이다(Baum & Paulus, 1987; Gifford, 1997).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피험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지역 거주자로서 상계동 지역 고층 아파트 거주자 70명, 둔촌동 지역 저층 아파트 거주자 78명, 구기동, 북아현동, 우면동, 형촌, 연희동, 수서의 고급주택 거주자 71명, 응암동 및 수유동 다세대주택 거주자 74명으로 총 293명이다. 남녀의 비율은 남자 125명(42.7%), 여자 168명(57.3%)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3·40대이고 학력은 고졸이상으로 제한하였다. 거주환경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동일장소에서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거주지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자료 통제하였다. 거주기간별 피험자 수는 현

거주지에서 3-5년동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96명, 5-7년동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80명, 7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17명이었다.

2) 각 주거 유형별 특성

상계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과 둔촌동의 저층 아파트 단지는 계획된 대단위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고, 주변의 도로망과 근린생활시설, 인근의 스포츠 시설, 공공시설, 주차장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아파트의 각 동은 충분한 인동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대별 면적의 평균값은 32평이다. 반면에 선정된 고급주택 단지는 60세대 미만의 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각 세대는 대부분 잘 정돈된 정원과 차고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단지 주변의 근린생활 시설은 잘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주변에 대중 교통 시설도 발달되지 않아 단지의 출입을 위해 자가용차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주택의 규모는 대지의 평균값이 93.36평이고 건평의 평균값은 61.17평이다.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집합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을 선정하였으며,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다소 떨어진 위치에 있다. 이 지역내의 도로는 매우 좁고 불규칙적으로 복잡하게 되어있으며 주차시설도 안되어 있다. 주변에 구멍가게 등은 있으나 편의시설과 공공 시설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각각 2-3층의 주택들이 서로 너무 인접되어 있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대부분 창에 커튼 등의 장치를 해놓고 있다.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별 면적은 평균 22.84평이다.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격 검사와 거주환경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성격 검사는 김재은, 김남순이 제작한 표준화된 한국 성인용 성격 검사에서 과밀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불안경향(대상에 관계없이 막연하게 느끼는 불안의 정도), 우울경향(정신적 변화나 신체적 능력의 감퇴에 의한 우울증의 임상적 징후의 정도), 내면성(즉흥적이고 충동적

인 외면성의 반대 의미), 책임감(개인적, 공민적, 사회적 책임의 수행정도), 안정성(정서적 안정성)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문항 수는 각 성격특성에 대해 20개이다.

각 성격 요인점수는 검사 제작자의 표준화 척도를 참고로 환산하였으며 각 점수가 높을수록 그 성격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검사 제작자는 25점 이하를 '해당 성격 특성이 낮다' 라고 75점 이상은 '해당 성격 특성이 높다' 라고 하였다.

거주환경 요인에 관한 질문지 내용은 내부 건축적 요인(거주지 내부 크기 및 느낌, 창 크기 및 느낌, 거주 공간의 외부시야도, 사생활 보호 정도, 일조시간)과 주거 기반시설(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 근린생활, 교통편리, 스포츠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 그리고 과밀감을 느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거주 환경 요인에 대한 질문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보통이다: 3점 ... 매우 그렇다: 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거주 환경 요인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5점으로, 부정적일수록 1점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과밀감에 대한 질문 역시 5점 척도이며 방향이 5점으로 갈수록 과밀감을 많이 느끼고, 1점으로 갈수록 과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질문지의 내용은 건축 관련 전문가 2인과 심리 관련 전문가 2인에게 내용 타당도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참고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Cronbach α 검증을 하여 질문지 내용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았다. Cronbach α 값은 .61~.85 사이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격 검사지 및 질문지는 조사요원들이 피험자들을 개별 방문하여 작성하였으며 회수된 자료는 SPSS 7.5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적 방법은 연령, 학력, 수입을 통제한 후 과밀감을 안 느끼는 사람, 보통인 사람, 많이 느끼는 사람간에 각 성격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ANCOVA)을 하였다. 또한 연령, 학력, 수입을 통제한 후 주거 유형과 거주 기간에 따른 성격 특성과 과밀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 공변량 분석(ANCOVA)을 하였다. 그리고 주거 유형별로 거주 환경 요인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량 분석(ANOVA)과 Duncan 사후검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적 요인이 잘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과밀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이 검증(t-검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과밀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른 각 성격 특성의 차이

연령, 학력, 수입을 통제한 후 과밀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른 성격 특성의 차이는 <표 1>과 같았다.

<표 1>은 연령, 학력, 수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과밀감을 안느끼는 사람, 보통인 사람, 많이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 불안 경향, 우울경향, 안정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불안경

<표 1> 연령, 학력, 수입을 통제한 후 과밀감 여부에 따른 성격차이

성격	과밀감	N	M	SD	F
불안 경향	안느끼는편	130	21.25	20.47	3.04*
	보통	116	22.56	22.72	
	많이느끼는편	47	33.34	29.75	
내면성	안느끼는편	130	32.18	26.32	.88
	보통	116	31.00	27.83	
	많이느끼는편	47	33.96	30.11	
우울 경향	안느끼는편	130	19.45	20.67	3.41*
	보통	116	19.15	20.73	
	많이느끼는편	47	31.72	27.92	
책임감	안느끼는편	130	45.29	29.22	2.78
	보통	116	40.09	29.62	
	많이느끼는편	47	32.19	25.48	
안정성	안느끼는편	130	58.70	29.17	4.41*
	보통	116	52.66	31.28	
	많이느끼는편	47	38.40	31.11	

* P<0.05

향과 우울경향은 과밀감을 느끼는 거주자가 높은 반면에 안정성은 과밀감을 느끼지 않는 거주자가 높게 나타났다. 책임감은 과밀감을 안느끼는 사람이 보통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보다 높았으나 이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p=.06$). 과밀감에 따르는 내면성의 차이는 무의미한 차이였다.

2. 주거유형 및 거주기간에 따른 각 성격 특성의 차이

〈표 2〉는 주거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성격 특성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표 2〉를 보면 유형에 따른 성격 특성은 모든 성격 특성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불안경향과 우울 경향이 가장 높

았고 저층 아파트 거주자가 가장 낮았다. 책임감과 안정성은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가장 낮았으며 고급 주택 거주자가 가장 높았다. 내면성은 고급 주택 거주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고층 아파트 거주자, 다세대 주택 거주자, 저층 아파트 거주자 순이었다.

거주기간에 따라 나타나는 성격 특성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았다.

거주기간에 따르는 성격 특성의 차이는 불안경향, 우울경향, 내면성에서만 나타났다. 즉, 거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불안경향, 우울경향, 내면성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거주기간이 3-5년인 사람들이 7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보다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며 더 내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과 안정성은 거주기간이 3-5년일 때 가장 낮았으나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주거 유형과 거주기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성격 특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주거유형에 따른 성격의 평균 비교

성격	주거유형	N	M	SD	F
불안경향	고층아파트	70	21.83	23.51	3.02*
	저층아파트	78	19.12	18.81	
	고급주택	71	25.54	24.07	
	다세대주택	74	28.57	26.07	
우울경향	고층아파트	70	19.34	22.45	3.59*
	저층아파트	78	16.18	17.33	
	고급주택	71	23.08	24.92	
	다세대주택	74	26.84	23.48	
내면성	고층아파트	70	31.36	27.19	3.92*
	저층아파트	78	27.73	25.27	
	고급주택	71	39.21	28.35	
	다세대주택	74	30.19	28.34	
책임감	고층아파트	70	41.04	27.25	2.97*
	저층아파트	78	41.46	29.69	
	고급주택	71	50.72	30.22	
	다세대주택	74	31.68	26.39	
안정성	고층아파트	70	57.80	27.92	3.67*
	저층아파트	78	51.45	32.84	
	고급주택	71	63.52	26.97	
	다세대주택	74	40.20	31.31	

* $P<0.05$

〈표 3〉 거주기간에 따른 성격특성의 평균

성격	거주기간	N	M	SD	F
불안경향	3-5년	96	25.42	24.32	4.58*
	5-7년	80	23.23	23.56	
	7년이상	117	22.63	22.54	
우울경향	3-5년	96	25.64	24.79	7.97***
	5-7년	80	19.96	20.92	
	7년이상	117	18.66	20.92	
내면성	3-5년	96	34.42	28.44	3.31*
	5-7년	80	32.76	27.59	
	7년이상	117	29.50	26.61	
책임감	3-5년	96	39.41	28.07	1.27
	5-7년	80	43.40	29.45	
	7년이상	117	41.00	29.79	
안정성	3-5년	96	47.92	31.38	2.95
	5-7년	80	55.21	29.75	
	7년이상	117	55.79	31.32	

*** $P<0.001$, * $P<0.05$

3. 주거유형과 거주기간에 따른 과밀감 차이

<표 4>로부터 연령, 학력, 수입을 공변량으로 통제 한 후에, 주거 유형에 따라 나타난 과밀감을 느끼는 정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표 4>를 보면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과밀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고급주택 거주자가 가장 조금 느끼 며 고층 및 저층 아파트 거주자가 그 중간에서 동 일한 점수를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거주기 간별로 나타난 과밀감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차이 였다.

4. 주거유형에 따르는 거주환경 요인에서의 차이

거주환경 요인을 건축적 요인과 주거 기반시설로 나누었을 때 <표 5>은 주거 유형에 따른 건축적 요 인에 대한 결과를 보여 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거주지 내부 크기는 고 급주택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저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 순 이었고 다세대주택이 가장 작았다. 던컨 검증 결과를 보면 고층 아파트와 저층 아파트간에 나타난 차이는 무의미한 차이였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였다.

거주지 내부 크기에 대한 느낌에서도 고급주택이 내부크기를 가장 크게 느꼈고 그 다음이 고층 아파 트, 저층 아파트, 다세대 주택 순 이었다. 던컨 검증 결과를 참고해 보면 이러한 내부 크기에 대한 느낌

<표 4> 연령, 학력, 수입을 통제한 후 주거유형과 거주기간에 따른 과밀감 비교

	과밀감	N	M	SD	F
주거 유형	고층아파트	70	2.65	.71	10.22***
	저층아파트	78	2.66	.78	
	고급주택	71	1.94	.82	
	다세대주택	74	2.91	.83	
거주 기간	3-5년	96	2.48	.86	1.09
	5-7년	80	2.54	.79	
	7년이상	117	2.61	.91	

*** P<0.001

의 차이는 고급 주택과 나머지 주택간의 차이만 유 의미하였다.

거주공간의 실제 창 크기는 저층 아파트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고층 아파트와 고급 주택이었고 다 세대 주택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던컨 검증 결과 저층·고층아파트와 고급주택의 차이는 무의 미한 차이이며 이들과 다세대 주택간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보호는 고층 아파트 거주자, 고급주택 거주

<표 5> 주거유형별로 나타난 건축적 요인에서의 차이

	유형	M	F	Duncan
거주지 내부 크기	고층아파트	2.88	11.55***	R≠H≠M H=L
	저층아파트	3.23		
	고급주택	3.68		
	다세대주택	2.12		
거주지 내부 크기에 대한 느낌	고층아파트	2.25	19.00***	R≠H H=L=M
	저층아파트	2.08		
	고급주택	3.14		
	다세대주택	1.90		
거주 공간의 창 크기	고층아파트	3.94	7.01***	L=H=R M≠L
	저층아파트	4.24		
	고급주택	3.94		
	다세대주택	3.28		
사생활 보호	고층아파트	4.60	3.36*	M≠H H=R=L
	저층아파트	4.31		
	고급주택	4.49		
	다세대주택	4.08		
일조 시간	고층아파트	4.46	1.10	H=L=R=M
	저층아파트	4.23		
	고급주택	4.44		
	다세대주택	4.14		
거주 공간의 외부 시야도	고층아파트	2.97	3.50*	R≠M R=H=L
	저층아파트	2.97		
	고급주택	3.42		
	다세대주택	2.51		

주: H=고층아파트, L=저층아파트,

R=고급주택, M=다세대주택

*** P<0.001, * P<0.05

자, 저층 아파트 거주자, 다세대 주택 거주자 순으로 잘되어 있었다. 그리고 던컨 검증 결과 고층 아파트, 고급 주택, 저층 아파트간의 차이는 무의미한 차이였고 다세대 주택과 다른 주거 유형간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차이였다.

일조시간은 모든 주거 유형에서 긴 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유형별로 나타난 차이는 무의미했다.

거주 공간의 시야도는 고급주택의 시야도가 가장 좋았으며, 고층 아파트와 저층 아파트 거주자가 동일하게 다음으로 좋았고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시야도가 가장 좋지 않았다. 던컨 검증결과 다세대 주택과 고급 주택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는 거주환경요인 중 주거기반시설 만족도에서의 차이를 보여준다. 주거 유형에 따른 주거기반시설 만족도에서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였다.

먼저 주차장 시설은 다세대 주택이 가장 불만이 컸고 다음이 고급주택, 저층 아파트, 고층아파트 순이었다. 던컨 검증 결과 다세대 주택, 고급 주택, 고층 아파트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유의미했다.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역시 다세대주택이 가장 불만이 컸고 다음이 고급주택, 그리고 저층 아파트, 고층아파트 순이었다. 던컨 검증 결과, 다세대 주택, 고급 주택, 고층 아파트간에 나타나는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였다.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다세대주택이 가장 불만이 컸고 다음이 고급주택, 고층아파트, 저층 아파트 순이었다. 그리고 던컨 검증 결과 유형간에 나타나는 모든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였다.

대중교통편리는 고급주택이 가장 불만이 컸으며, 그 다음이 다세대 주택, 고층 아파트, 저층 아파트 순이었다. 던컨 검증 결과 고급 주택과 저층 아파트 사이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주변의 스포츠시설은 다세대 주택이 가장 불만이 컸고 다음이 고급주택, 고층아파트, 저층 아파트 순이었다. 그리고 던컨 검증 결과 유형간에 나타나는 모든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였다.

주거기반 시설의 미비로 짜증을 낸 횟수도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가장 자주 짜증을 내었고 그 다

〈표 6〉 주거유형별로 나타난 주거기반시설 만족도에서의 차이

	유형	M	F	Duncan
주차장 시설	고층아파트	4.49	39.51***	H=L H≠R≠M
	저층아파트	4.22		
	고급주택	3.96		
	다세대주택	2.21		
쓰레기 분리수거	고층아파트	4.47	43.08***	H=L H≠R≠M
	저층아파트	4.36		
	고급주택	3.43		
	다세대주택	2.22		
근린 생활	고층아파트	4.28	70.69***	L≠H≠R≠M
	저층아파트	4.71		
	고급주택	2.77		
	다세대주택	2.04		
교통 편리	고층아파트	4.01	5.12*	L≠R H=L R=M
	저층아파트	4.32		
	고급주택	3.54		
	다세대주택	3.56		
스포츠 시설	고층아파트	3.15	64.92***	L≠H≠R≠M
	저층아파트	4.77		
	고급주택	2.69		
	다세대주택	1.64		
주거 기반 시설 미비로 인한 짜증횟수 [#]	고층아파트	4.69	4.77*	M=R M≠H M≠L
	저층아파트	4.76		
	고급주택	4.38		
	다세대주택	4.14		

주: H=고층아파트, L=저층아파트,
R=고급주택, M=다세대주택

*** P<0.001, * P<0.05.

짜증 횟수 문항에서는 평균값이 클수록 짜증을 덜내었다.

음이 저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 순이었다. 고급주택 거주자는 다세대 주택 거주자보다는 덜하지만 그 밖의 다른 주거 유형 거주자들 보다 짜증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던컨 검증 결과는 다세대 주택과 고층 아파트, 다세대 주택과 저층 아파트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들을 다음의 몇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1. 과밀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개인의 불안 경향, 우울 경향과 안정성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과밀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과밀감을 안느끼는 사람들보다 더 불안하고 우울하였으며 과밀감을 안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사람들보다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밀감을 많이 느낄 때 정신병적 증후를 갖게 되고 긴장감을 느끼며(Holahan, 1982), 위축되고 우울해지고(Holahan, 1982; Fisher, Bell, Baum, 1984), 불안하고 걱정이 많게 된다(Mitchell, 1971)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2. 주거 유형에 따라 거주자의 성격 특성과 과밀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내부 건축적 요인과 주거 기반 시설 만족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유형에 따라 거주자들의 성격 특성과 과밀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난 이유는 주거 유형에 따라 내부 건축적 환경이 다르고, 주거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결과도 발견했다.

각 주거 유형별로 거주자들의 성격과 과밀감 정도 그리고 각 주거 유형의 내부 건축적 요인 및 주거 기반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불안 및 우울 경향이 제일 높고, 책임감과 안정성이 제일 낮았다. 그리고 과밀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의 내부 건축요인을 보면, 주거지의 내부 크기가 다른 주거 유형보다 가장 작았고 거주자

들 또한 내부 크기가 작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창의 크기도 가장 작았으며, 사생활보호도 가장 나빴다. 그리고 외부 시야도도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세대 주택의 내부 건축요인의 특성은 거주자들의 과밀감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쌓이게 된 과밀감이 거주자들에게 높은 불안경향과 우울 경향을 강화시키고 안정성과 책임감을 약화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주거기반시설 만족도와 관련하여 다세대 주택은 교통 편리를 제외한 모든 주거기반시설(주차장시설, 쓰레기 분리수거, 근린생활시설, 스포츠 시설)에서 만족도가 보통 수준(3점)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다른 어떤 주거 유형보다 이러한 주거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가장 자주 짜증을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세대 주택이 겪고 있는 열악한 거주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거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 고급 주택

고급 주택 거주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급 주택 거주자는 내면성, 책임감, 안정성이 제일 높았으며 과밀감은 가장 낮았다.

고급 주택의 내부 건축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과 정반대로 내부 크기 및 크기에 대한 느낌, 창의 크기, 외부 시야도가 가장 잘되어 있었고 사생활 보호도 잘되어 있었다. 이렇게 거주자의 만족을 고려하여 내부 건축적 요인을 설계하는 것이 거주자들에게 과밀감을 덜 느끼게 하여 책임감과, 안정된 성격 특성을 갖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급 주택 거주자들의 불안 및 우울경향은 다세대 거주자 다음으로 높았는데 이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아마도 주거 기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에 기인하는 듯하다. 고급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 이상이라는 하지만 고층 아파트나 저층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 편리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어떤 주거 유형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Crispell Diane(1997)은 도시 거주, 농촌 거주 등의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우울한 경향이 높고 주거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고급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기반시설(특히 교통 편리)에 대한 높은 불만족도는 불안 및 우울경향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겠다

3) 고층·저층 아파트

과밀감이나 성격 특성에서 고층 아파트 거주자와 저층 아파트 거주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고, 던컨 검증 결과 저층 아파트와 고층 아파트의 거주 환경 요인에서 비슷한 측면이 많았다.

고층·저층 아파트 거주자들의 책임감 및 안정성은 고급 주택 거주자들보다 떨어지나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밀감에서는 고급 주택 거주자들보다는 과밀감을 더 느끼지만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보다는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층·저층 아파트 거주자들의 내부 건축적 요인을 살펴보면, 고층·저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집 내부 크기나 내부 크기에 대한 느낌이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다고 느끼거나 또는 작다고 느끼는 편이었다.

반면에 거주지 창의 크기는 다세대 주택보다는 크고 고급주택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던컨 검증 결과 고급주택과의 차이는 무의미한 차이였다.

사생활 보호도 고급 주택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보통(3점) 이상의 점수에 답한 것으로 미루어 대체로 사생활 보호가 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외부 시야도는 고급 주택보다는 떨어지지만 다세대 주택보다는 좋은 외부 시야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고급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중간이라는 내부 건축적 여건이 책임감, 안정성과 과밀감에도 반영되어 고급 주택 거주자와 다세대 주택 거주자 사이의 중간 점수를 받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거주기간에 따라 성격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거주기간에 따라 성격 특성에서의 차이도 나타났다. 즉,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불안·우울 경향의 부정적인 성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공간 사회적 밀도와 관련된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Bonnes, Bonaiuto & Ercolani(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4.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서울이라는 한정된 연구 지역을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대도시 거주자들의 특징으로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 외에 거주 환경도 개인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정을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밀감을 낮추고 책임감과 안정성을 높이며 개인의 불안과 우울 경향을 감소시키는 데 거주 환경 요인이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거지를 설계할 때 창을 적절히 크게 하여 내부공간이 개방된 느낌을 갖게 하고, 일조량이 충분하도록 배치나 구조에 유의하며, 외부로의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거주자의 과밀감을 줄이고 안정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건축적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 결과는 고밀도 집합 주거 단지인 아파트 거주자들이 심각한 거주환경 문제를 갖고 있지 않으며, 고밀도 거주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아파트의 내부 건축적 요인과 주거 기반시설이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거주자의 긍정적 성격을 강화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밀도 집합주거 단지

의 계획에서는 내부 건축적 요인과 주거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내부 건축 환경요인의 측면에서나 주거 기반시설의 만족도의 측면에서 다세대 주택의 거주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이러한 환경이 거주자의 우울·불안 경향, 과밀감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재은, 김남순(1991). 성인(남녀)용 성격특성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장성수, 윤희정(1999). 주택유형별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P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9(131), 11-18.
- 이양자(1983). 주거형태에 따른 아동의 행동 양식과 가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영희(1985). 주거 환경이 아동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Altman I. (1975). *The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privacy, personal space, territory and crowding*. Brooks/Cole, Monterey Calif.
- Archea J. (1977). The place of architectural factors in behavioral theories of privacy. *Journal of social Issues*, 33(3), 116-137.
- Baum A. & Paulus P.B. (1987). Crowding. In D. Stokols & Altman I. (Eds.), *Handbook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 533-570.
- Bonnes M., Bonaiuto M., Ercolani A.P. (1991). Crowding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he urban environ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23(5), 531-552.
- Cohen Sheldon(1980). Aftereffects of stress on human performance and social behavior: A review of research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88(1), 82-108.
- Crispell Diane (1997). Moody neighborhoods. *American demographics*, Dec. 97, 19 (12), 30.
- Fisher J.D., Bell P.A., & Baum A. (1984). *Environmental psychology*(2nd ed.). N. Y: Holt, Reinhardt, & Winston.
- Galle O., Gove W., McPherson J. (1972). Population density and pathology: What are the relations for man. *Science*, 176, 23-30.
- Gifford R., (1997). *Environmental psychology*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Holahan C. J. (1982). *Environmental psychology*. N. Y: Random House.
- McCain G., Cox V.C., & Paulus P.B. (1976). The relationship between illness complaints and degree of crowding in a prison environment. *Environment and Behavior*, 8, 283-290.
- Mitchell R. E. (1971). Some social implications of high density hous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 18-29.
- Ryff C.D. & Keyes C.L.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chmitt D.E., & Keating J.P. (1979). Human crowding and personal control: An integration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6, 680-700.
- Stokols, D. (1972). On the distinction between density and crowding: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ical Review*, 79, 275-277.